

濟州島의 學術資料의 價値

—神話學部面—

張 籌 根

濟州島는 모든 學問分野에서 標本室같은 社會라고 일컬어져 왔다. 그러한 느낌은 神話學의 경우도 다른 分野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지금도 司祭者가 祭床앞에서 神을 찬양하여 부르는 노래 가운데 叙事的 줄거리를 갖춘 참다운 神話의 存在樣相을 볼 수가 있다. 檀君神話, 朴赫居世神話등 소위 文獻神話들이 이미 機能을 喪失한 죽은 神話인데 비해서, 이는 참다운 살아있는 神話라 하겠다. 이른바 심방들의 本풀이가 그것이다. 그 傳承分量도 매우 많으며, 이것을 그 巫俗과 아울러서 調査하고 잘 分析하면, 그것은 神話學에서는 오늘날 全世界에 공헌할 수 있는 귀중한 學術資料라 하겠다.

여기에는 神話가 가지는 宗教的 機能, 文藝的 機能, 社會的 機能들이 다

內包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얻은 資料와 設定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들의 옛 文獻神話들을 해석 설명하는 데에 커다란 열쇠를 얻을 수가 있다. 물론 다른나라 神話들의 연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神話는 民族의 꿈이라고 한다. 꿈은 理想에 通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庶民社會가 품어온 이 소박한 꿈과 理想을 그냥 忘却의 彼岸에 저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의 近代化, 西歐化 바람에 이 資料들은 이제 다 사라져 가고 있다. 지금은 이미 迷信打破만을 부르짖을 때는 아니다. 어떻게 해서 채 다 사라지기 전에 그 學術價値를 保存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時急하다. 문제는 그 調査와 記錄保存이겠지만, 한편으로는 文化財的 側面의 保存措處도 요구되고 있다.

濟州島는 海產物資源, 牧畜資源, 特用作物資源, 觀光資源 등 좋은 資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먼저 時急한 것은 그 學術資源의 開發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지금 消滅前夜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또 이 學術資源의 開發이 餘他資源들을 참답게 開發하는 基本知識이나 方針을 제시해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濟州島의 學術研究에 微力を 다하려고 뜻과 힘을 규합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대 국문과 교수)